

지역 소식통

제678회 지평선아카데미 '만성피로 극복 프로젝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29일 제678회 지평선아카데미에 김영삼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초청해 '만성피로 극복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의 의학 석사를 이수, 아주대병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거쳐 현재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만성피로 명이라 불리는 김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현대인은 피곤한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잠을 자도 나아지지 않는 피로는 치료가 필요한 만성피로로 분류 된다"며 만성피로는 왜? 생기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는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주조정보시설 관리박차 아간식별 LED 건물번호판 설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6일 신규시책사업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36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LED 건물번호판 설치로 주조정보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위치를 표시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6월까지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ED 건물번호판은 태양광 전기로 야간에 LED 조명을 작동시켜 전력소비 또한 최소화시키며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주조정보시설 관리박차 아간식별 LED 건물번호판 설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26일 신규시책사업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36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LED 건물번호판 설치로 주조정보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위치를 표시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6월까지 LED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ED 건물번호판은 태양광 전기로 야간에 LED 조명을 작동시켜 전력소비 또한 최소화시키며 도시미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현장 소통행정 호응

정성주 시장, 정주여건 개선 위해 지평선 산단 내 체육공원 점검

정성주 김제시장이 현장을 찾아가는 소통 행정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6일 정 시장이 간부공무원을 비롯 지평선산단협의회 회원 등과 함께 지평선 산단내 체육공원(백산면 부거리 1578)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평선산단내 체육공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80%)과 시비(20%)를 들여 지평선 산단 내 체육공원 시설을 정비해 산단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시설정비로 기존 낙후된 체육 시설 개선과 산단 거주 시민들의 여가



26일 정성주 김제시장이 간부공무원을 비롯 지평선산단협의회 회원 등과 함께 지평선 산단내 체육공원(백산면 부거리 1578)을 점검했다.

생활 보장,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달 시민과의 소통 열린대화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시민과 소통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이날 초부터 꾸준히 자유무역지역 주요 투자기업과 화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현장,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 기업들과 소통하며 탁상행정 아닌 현장 소통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감을 증대 시키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A씨는 "정성주 시장의 소통은 자치단체장의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김제의 주인은 다른이 아닌 우리 시민 모두"라며 "김제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 어느때든지 최우선으로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며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센터 풍물놀이 교육 추진

8개소 200명 아동 대상... 다음달부터 시작

완주군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당실당실 신명나는 풍물놀이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지원센터와 미래행복센터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 200명 아동을 대상으로

1회 진행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로 아동에게 국악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장단 맞추기, 국악기 연주 지도 등이 이뤄진다.

10월 중에는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심리적으로 내재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동의 사회성 향상과 정서발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 모두가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소중한 존재"라며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정월대보름 맞이 재능기부 나눔 행사' 개최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전통음식·부럼 등 나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가 지난 23일 김제역 광장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음식 및 부럼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대보름 재능기부 나눔 행사는 화려한 풍물놀이 의상과 악기 소리로 대보름의 기운을 높였으며 함께 참여한 시민들과 관광객 200여 명에게 전통음식, 오곡밥과 부럼 등을 나눠줬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 해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

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시민들과 김제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즐거운 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 김제시가 귀농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 재능기부, 도시

민 교육 및 상담, 멘토컨설팅, 동아리 활동, 갈등해소 체험학습 등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 지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김제로 이주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정월대보름 풍습인 오곡밥을 나눠 먹고 부럼을 깨는 등 전통문화를 재연, 계승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며 "귀농귀촌협의회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희망을 선물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 창업농 '팀빠머'와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부생들이 모여 이뤄진 '일용직 새싹'이 2023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3 스마트농업 AI경진대회

김제 '일용직 새싹', 최우수상

4개월간 원격 작물재배 수행, 우수모델로 평가 받아

김제시(시장 정성주) 청년 농부들이 모인 팀빠머(대표 김기현)의 행보가 남다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 창업농 '팀빠머'와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부생들이 모여 이뤄진 '일용직 새싹(팀장 석승원)'이 2023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농림축산식품부 주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빠머+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부생)은 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팀빠머 김기현 대표는 "미래 농업의 현장,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토마토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번 4개월이 가장 농사에 집중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면서 "농사가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스마트팜에서 배운 다양한 재배 지식과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한 토마토 재배에 접목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간 원격 작물재배를 수행, 우수모델로 평가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서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살펴본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농업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가 탄생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앞으로도 김제청년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 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수익, 환경 친화성, AI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번 스마트농업 AI경진대회는 총상금 1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경진대회로 '일용직 새싹'(팀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관내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2024년 방과후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한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교과학습(논술스피치, 스피킹영어, 창의수학, 미술테라피)과 체험활동(플로리스트(원예), 밴드, 4차산업(유튜브, 드론, 멀티미디어), 스포츠)을 비롯해 주말체험활동과 특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완주군청소년수련관(063-290-3878)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급식, 귀가 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